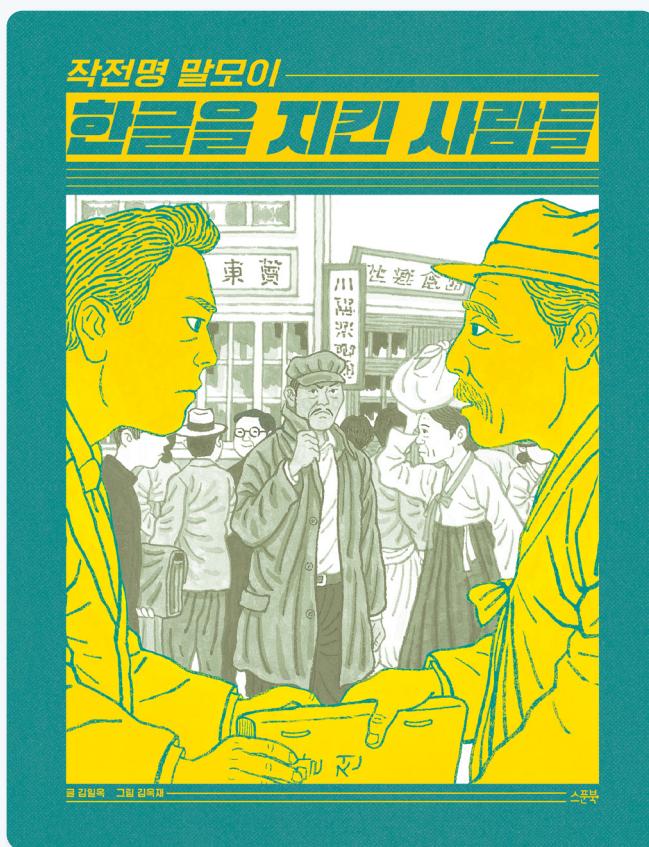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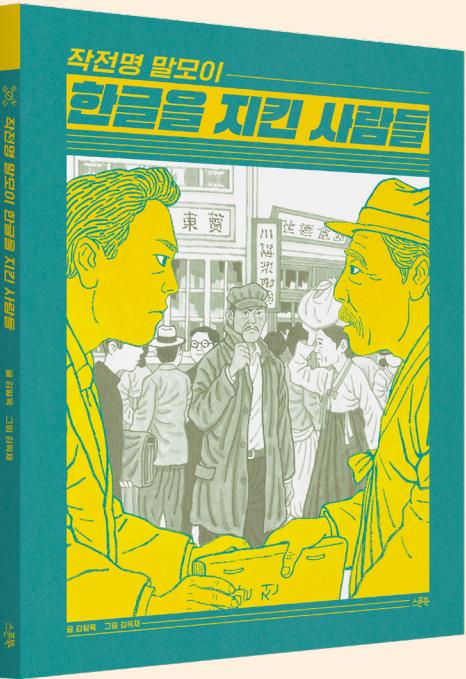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작전명 말모이 한글을 지킨 사람들

글 김일옥 | 그림 김옥재

스폰북



작전명 말모이 한글을 지킨 사람들

- 글: 김일옥
- 그림: 김옥재
- 출판사: 스푸북
- 정가: 14,000원
- 분량: 132쪽
- 대상: 초등 고학년
- 키워드: #역사 #한국사 #일제_강점기 #한글

책 소개

일제 강점기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조선어 학회 학자들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들 역시 우리말 사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선어 학회의 사업에 힘을 보탰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치열하게 싸운 결과,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가 이어졌음에도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금방 우리말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일본의 탄압에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조선어 학회.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 보아요!





독서 전 :

책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

작전명 말모이 한글을 지킨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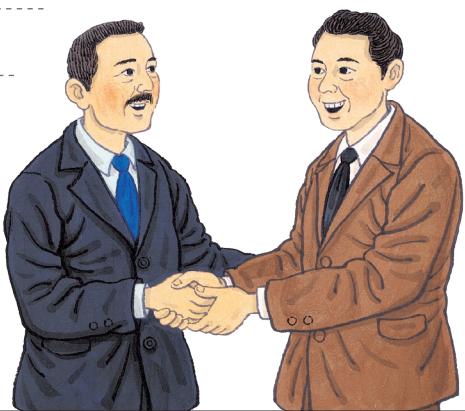


- 1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 말모이 작전은 어떤 걸까요?

- 2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
–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무엇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나요?
–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아요.

예)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다.





독서 중

책 속으로

-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1~2)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조선어사전 원고는 정말 대단했다. 조선어 말살 정책의 성과가 이제 서서히 빛을 보나 했는데, 조선어사전이라니! 이게 어떻게 문화 운동이란 말인가?

일본의 식민지 언어 정책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통제되고 있었다. 일본의 언어학자 호시나 고이치는 독일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강제한 동화 정책을 본받아 단순히 조선어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민족성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개조시키고자 했다.

“조선어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아, 저 그게……. 지, 지금 조선어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그……,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본어를 강력한 권력 언어로 만들어 놓으면 조선 사회가 저절로 일본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은 독일이 너무 급하게 언어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정신 개조에 실패한 것이라 보았다. 그래서 조선어 말살을 서두르지 않았다. 식민 통치 초기 시절, 총독부 관리들에게 조선어를 장려하기도 하고, 조선어 강습을 허락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국가 기관이나 학교를 통해서 조선어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1 일본이 우리말을 없애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일본식으로 완전히 개조시키기 위해서. 일본어를 사용하게 만들면 조선 사회가 일본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 위의 답변을 참고하여 일본이 조선어 학회 사람들을 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세요.

답) 조선어 학회 학자들이 우리말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려고 체포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말은 점점 사라졌을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독서 중

책 속으로

- 여러분이 방언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단어를 적어 조선어 학회로 보내고 싶나요?

방언 수집

조선책사전회에서 각 지방 방언을 수집하기 위하여,
4~5년 전부터 시내 각 중등학교 이상 학생을 총동원하야,
하기 방학 시 귀향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방언을 수집하였던 바,
이미 수집된 것이 만여 점에 이릅니다.
이것을 정리하여 장차 사전 어휘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방언 조사란을 특설하였으니,
누구시든지 이 난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제3권 제8호

단어	뜻풀이



독서 중

책 속으로

- 조선어 학회는 시기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학회의 이름과 사건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국어 연구 학회
(1908~1911년)

조선 언문회
(1911~1920년)

조선어 연구회
(1920~1991년)

조선어 학회
(1931~1949년)

한글 학회
(1949년~)

- 조선 광문회에서 조선어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했어요.
-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 가갸날(현재 한글날)을 제정했어요.
- 사전을 만들기 위해 조선어사전 편찬회를 설립하였어요.

- 이승만이 한글 맞춤법을 간소화하라고 명령했어요.
- 《큰 사전》이 총 6권으로 완간되었어요.

- 주시경이 국어 강습소를 설치해 제자들을 길렸어요.
-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어가 국어가 되었어요.

- 박영희의 일기장에 쓰인 글을 빌미로 일본이 학회의 학자들을 체포했어요.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 독립운동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도 알려 주세요.

무장 항일 운동

독립군 부대를 결성해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이는 등 일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방법의 독립 운동을 말해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는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 중근 의사,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 등이 있어요.

실력 양성 운동

독립을 위해서 조선이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독립운동 방법이에요. 조선 사람은 조선의 물건을 쓰자던 물산 장려 운동,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농민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농촌 계몽 운동 등이 있어요.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일본에 맞서 문화를 지키려는 운동을 말해요.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 사전을 만든 조선어 학회,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우리 역사를 연구하고 지킨 신채호와 박은식, 저항적이고 민족적 색채가 강한 문학 작품을 쓴 이육사, 김소월 등이 있어요.

나라면 (

) 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을 거야.

그 이유는,

때문이야.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 1931년부터 해방이 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불러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말 사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회의감도 생겨났지요. 그런데도 조선어 학회 학자들은 묵묵히 사전을 만들고 우리말 연구를 해 나갔어요. 이 시기의 조선어 학회 학자들에게 힘이 될 편지를 적어 보아요.

A cartoon illustration of a group of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clothing (Hanbok) gathered around a long wooden conference table. The man at the head of the table, wearing a white lab coat, is gesturing and speaking to the others. The people are holding papers and cups, suggesting a meeting or a discussion session.

